

#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완주의 자연물 그림이 되다 '최현' 작가

## 그림을 그리는 최현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업 작가로 1997년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주, 완주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비구상과 구상 작업을 하다가 현재는 비구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작업을 저의 기억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 다 겪는 보편적인 사건이더라고요.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성되고 과정을 거쳐서 소멸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존재에 대한 관계가 변형이 이루어져요. 그 부분이 계속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순간순간 포착해서 그림에 표현합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곳에 투영이 되고,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자연을 소재나 재료로 삼는 이유가 있다면?

자연물 낙엽을 재료로 사용한 건 1998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재료를 찾는 중에 길을 가다가 그날따라 낙엽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낙엽을 만져보는데 땅에 떨어진 낙엽이 층에 따라 점점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지는 순간에 놓여 있는 낙엽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보는데 과거와 현재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생성과 과정, 소멸에 대해 생각이 들면서 그 존재와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낙엽을 가지고 오랜 시간 작업하다 보니 낙엽은 작업하기에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과 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낙엽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술이 생소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미술작품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편견 없이 작품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눈으로 보고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작품과 대화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가의 정신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을 먼저 만나고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느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작가도 작품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감상하실 때도 조금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즐거움을 알게 되고 미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완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남편이 상관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상관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상관에서 아이도 낳고 생활을 하며 작업을 한게 20년이 되었습니다.

완주에서 일어나는 미술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메이커' 프로그램으로 상관주민들과 미술 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는 예술로 방콕프로그램으로 상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시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연물이 다 똑같은 것인 줄 알았었는데 다르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주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완주에서 나는 자연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물과 또 다른 재료를 접목시켜서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내년 12월에 서울의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회가 잡혀있습니다.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게 저의 작품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주의 자연물을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의 자연은 저의 작업과 직접 연결됩니다.

자연환경에 가까운 저는 물질적이나 정식신적으로나 작업하기 좋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완주의 자연물을 통해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